2022년 10월 30일
구역말씀나눔(22-22)

주일예배 구역모임

- 본문 : 에베소서 1장 23절
- 제목 :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교회"

설교자 : 조경래 담임목사

· 본문 읽기

23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 마음의 문을 열며

지난 2002년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월드컵입니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을 응원하면서 응원단이 내세웠던 슬로건을 기억합니다.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슬로건이었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면 실재가 될 것이라는 희망과 소망을 갖게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기대가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여기에 분명한 가치가 있다면 더욱 그 바람은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확실한 가치에 대한 기준을 놓친다면 허탈감과 허무함에 사로잡히는 것은 시간문제 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허탈감에 빠지지 않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완전한 가치를 찾고 그것을 향해 나아감에 있어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군사로서 바로서기를 소망합니다.

1.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성경이 말하는 확실한 가치를 세우고 기대를 갖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바른 지표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로 교회가 충만해지는 것이 놀라운 능력"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능력으로 인해 내면과 삶에 변화가 있었던 일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 말씀의 씨를 뿌리며

2. 교회의 본질을 생각할 때 교회는 무엇으로 충만한 존재입니까? '우리 자신'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충만함이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엡1:23, 골3:16a, 엡1:19)

3. 교회의 본질에 토대를 두고 있는 바울의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엡1:22~23) 바울의 그 기도는 교회와 교회 사역을 어떻게 깨닫고 있는 것입니까?

4. 교회인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고, 우리 송원교회를 통해 세상 만물을 회복하여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맡길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리고 성경은 그 실천을 어떻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엡1:23b~24)

· 삶의 열매를 거두며

5.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칭찬의 제목이 "복음의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이라고 하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교회"로서 교회와 복음의 일꾼이 될 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충만하게 채울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내 삶에 영광을 깨닫기 위해 지금 내가 복음의 일꾼으로서 할 수 있는 삶의 결단은 무엇이 있습니까? 함께 나누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